

살기 좋은 마을의 거점에 관한 사례연구:
마을도서관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가족친화적 활동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mily-friendly Community Activity of the Community Library
and the Apartment House Residents' Representative Committee

광주대학교 가족복지전공
교수 김선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수료 김소영

Dept. of Family Welfare, Gwangju Univ.

Professor: Kim, Seonmi

Dept. of Consumer Studies & Family Resource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

Doctoral course: Kim, So You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가족친화마을'과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
| III. 연구방법 | |

〈Abstract〉

This qualitative case study focused on two types of livable, family-friendly communities and their activities. The landscaping, the community library, and the Dongbu Apartment Residents' Committee were examined in relationship to the everyday lives of the community's residents through observation and an in-depth interview. The experiences and thoughts of two representatives and four volunteers were described in detail. This

* 이 연구는 2009년도 광주대학교의 대학 연구비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주저자, 교신저자: 김선미 (yupy1005@hanmail.net)

study implies the importance of activity as well as a visible effort to improve quality of life. Further, it implies the necessity of a long-term perspective and commitment to developing a livable community base with strategies consistent with integrity and the values of everyday life. Above all, we researchers emphasize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the livable community is the third sector; a public space based on everyday life located between a structurally separate work space and family space.

Key Words : 가족친화마을(family-friendly community), 자발적 참여(spontaneous participation), 일상생활에 기반한 공공영역(public dimension based on the everyday lives)

I. 서론

이 연구에서 우리는 마을도서관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가족친화적 지역을 조성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자율성의 성격을 규명하고, 마을도서관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거점으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근대사회에서 도시는 함께 있지만 고독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고립된 장소였다(마페줄리, 2009). 도시에서의 삶이 직장과 학교와 같은 공적 영역과 가족이라는 사적인 영역으로 이분화 되어 나타나는, 생활의 주체인 사람들에게 야기하는 긴장과 소외, 그리고 파편화는 그러한 삶을 소극적으로 수용하느냐 아니면 성찰과 모색을 통해 적극적으로 극복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우리는 극복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움직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과연 도시에서도 그 극복의 노력을 찾아볼 수 있을까? 있다면 그 노력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체험할까?

‘건강가정’ 그리고 ‘일-가정 양립’이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같은 이슈들이 담론화를 거쳐 각각 ‘건강가정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로 법제화되고 그와 관

련된 사업들이 최근 들어 속출하고 있다. 2007년 행정자치부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실행사업으로 강원도 영월, 충남 논산, 전남 장흥을 가족친화도시로 선정하고 마을 재구성 프로젝트를 시행한 것(이송지외, 2009:16)도 한 예이다. 우리는 연구자로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추세에 부응하고자 가족친화마을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 우리는 가족친화마을 형성의 기초로 다양한 거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데 착안하되, 그 가운데에서 가장 보편적인 거점을 우선 찾고 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가족친화 직장환경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지만, 가족친화 마을환경에 대한 연구는 희박하다(차성란, 2009:72). 가족친화 사회 환경과 관련된 연구가 상대적으로 일터 부분에 쏠리고 있는 이유는 가족친화마을 만들기는 다양한 특성들을 가진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보다 복잡한 차원인데 비해, 가족친화직장 만들기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그들의 지속적인 헌신을 얻어내어 일정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를 가진 기업이 결단만 한다면 제도적인 부분을 주도적으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아직 가족친화마을에 관한 연구는 지극히 초기단계인데, 최근에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용역으로 가족친화마을 모델연구

(이송지외, 2009)가 이루어져, 서울의 성미산, 부천의 고강동, 부산의 반송동, 전북 장수 등이 가족친화마을의 사례로 연구되었다. 이 때 포함된 거점들로는 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지역주민모임, 생활협동조합, 공동육아어린이집 등이 있다. 한편, 가족친화마을에 대한 희소한 연구물들 가운데에서도 서울의 성미산마을은 복수의 연구물들(유창복, 2009; 이은희, 2008; 조한혜정 외, 2006; 조한혜정, 2007)을 낼 정도로 ‘살기좋은 마을하기’의 역사가 오래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연구자들의 관심을 크게 받고 있다.

가족이 살기 좋은 마을이 과연 어떻게 시작되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또 어떻게 주체로서 사고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 초심자의 시각으로 기초 연구를 시작하고자 했던 연구자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가장 유리한 ‘최대한 알려지지 않은 사례’를 찾아 나섰으며, 마을 전체보다는 초기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마을도서관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는 두 가지 거점을 탐구하였다. 마을도서관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도시 지역 내 모든 사람에게 개방적인 관련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다른 거점들보다 훨씬 더 보편적인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II. ‘가족친화마을’과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

이 절에서는 가족친화마을의 연구 자료들을 검토해 보고, 무엇이 중요한 논점들인가 그리고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가족친화마을의 개념과 국가의 정책적 노력을 기존의 연구를 통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2007년 제정)에서는 가족친화마을환경을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 환경”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돌봄의 분담’과 ‘가족구성원의 필요를 채우는 시공간적인 여건’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다른 연구자들도, “다양한 가족유형과 그 구성원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생활패턴과 그 요구사항이 바뀌더라도 살아온 곳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박소현, 2006), “아이를 즐겁게 키울 수 있고, 어른들이 오래 살고 싶은 마을”(이송지외, 2009), “지역사회의 모든 세대가 각자의 삶을 조화롭고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홍승아, 2007)로 각각 정의하였다. 요약해보면, 가족친화마을이란 “다양한 가족유형과 가족의 세대, 생애주기별로 상이한 요구를 포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내포한다고 하겠다.

‘가족친화마을’은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촉진에관한법률’ 제정을 계기로 공식화한 용어다. 저출산·고령화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가 될 무렵, 가정에서 담당하던 돌봄 노동의 공백과 가족해체에 관한 담론이 급부상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부에서는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고, 그 연장선에서 법률도 제정되었다. 법률 제정 이후 정부는 강원도 영월, 전남 장흥, 충남 논산에서 가족친화적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또 이 법률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서론에서 말했듯이 실제 가족친화마을의 모양을 띠기 시작한 몇 가지 사례 마을을 통해 가족친화적 마을 만들기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이송지외 연구, 2009)도 수행하였다.

위의 연구에서 가족친화 마을 만들기 모델로 제시된 것은 도시1형, 도시2형, 그리고 농촌형이다. 도시1형은 주민주체역량이 조직적이지 못하지만 가족친화기관들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주민교육과 참여를 일으킨다. 도시2형은 마을 만들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주체가 형성되어 주체들 사이의 사업별 네트워크가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으로 기존의 활동영역을 확장하여 마을의 공동체성을 키워간다. 농촌형은 결혼이민자문제를 해결하여 가족 내 그리고 가족 간 관계망을 안정화시키고, 다문화사회로의 정착과 지역경제 및 마을문화를 만들어 간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구분은 가족친화마을로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이 선발된 소수의 사례를 귀납적으로 정리한 것이어서 객관성을 가진 유형화라고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다. 오히려 이 연구가 보여준 귀중한 결과라면, 각기 다른 단계에 있는 마을들로부터 마을 만들기 경과과정을 추출하여 7단계로 모형화한 점이다. 그 단계는 (1)제안그룹의 등장 (2)제안사업의 계획 짜기 (3)사업계획 실천하기 (4)지역기관 단체들의 연대와 네트워크 만들기 (5) 마을활동가 지원구조 만들기 (6)마을 만들기 비전 만들기과 중장기 구상 (7)제도와 같은 주민참여방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과과정은 가족친화마을의 단계에 대한 진단이나 향후 과정을 전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족친화마을로서 비교적 성숙한 성미산마을의 경우, 유창복(2009)은 형성기와 확장기 그리고 전환기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성미산마을 사례의 중요성은 소수 활동가들의 목적의식적 활동으로 형성된 다른 주민공동체와 달리, 자신의 생활상의 필요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연결망이 확장되면서 형성된 과정을 보여준 점이다. 그리고 내생적인 확장의 연속선상에서 생협과 같은 조직이 생성되

면서, 교육·문화·환경·경제·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적이고 폭발적으로 마을이 활성화되는 측면도 보여준다. 그렇게 형성된 다양함이 다른 한 편으로는 전환기에 이르러 소통의 문화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음도 간파하고 있다. 유창복의 연구(2009)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행단계를 함축하고 있다. 앞의 이송지외의 연구(2009)가 몇 가지 사례를 관통하여 결론을 얻고 있다면, 이 연구는 한 가지 사례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하여 결론을 내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가족친화마을의 기본 이념을 차성란(2009:75)은 몇 가지 관련 문헌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다양한 가족들이 통합되어야 하고, 둘째, 가족중심 이기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정신 이타주의와 공익우선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하고 또 셋째,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살림의 정신을 근간으로 한다. 이러한 가족친화마을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정의, 모델, 유형, 단계 그리고 기본 이념은 우리 연구에서 마을도서관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성격과 활동가들의 일의 특성이 얼마나 가족친화마을과 관련되는지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관 주도성이 강한 가족친화마을 시범사업은 어떠한가? 차성란(2009:78)은 “시범사업 실시 이후 3년여가 지난 현재에도 가족친화마을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 막대한 공적 예산이 투입된 시범사업은 그 성과에 대한 엄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민의 일상생활로 귀결되는 살기 좋은 마을의 제반 측면들은 그 총체성 때문에 바로 질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성과 연구가 극히 드문 가운데, 2009년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에서 발표된 연구물들과 토론자들의 지적은 가족친화마을 만들기에 대하여 총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2009년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가족지원서비스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한마음 가족친화마을 만들기’라는 공모사업을 시행하였다. 사업의 구성요소에 담긴 내용을 보면, 가족육구 자료 축적, 이웃사촌과 다양한 가족 자조모임 지원, 지역 서비스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개별 가족과 지역사회, 민간단체의 유기적인 협조, 지역 현안 발굴 및 주민의 참여 확보, 지역사회의 리더와 가족 지역연대 코디네이터 양성, 지역 지도를 통한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발굴을 포함시키고 있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지역 내 가족관계 형성 및 교류와 가족역량강화 및 자조능력 향상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전개이다.

강기정과 박경애(2009)가 이 사업에 선정된 기관(사회복지관2곳, 건강가정지원센터 4곳, 다문화가족지원센터1곳)의 프로그램을 기관의 특성, 지역적 특성, 사업특성, 사업연계, 사업평가의 범주 별로 분석하였으나, 사업수행의 이면까지는 범주화하지 못한 점을 지적받았고, 내용분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요인이나 전략 조건의 파악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박수선, 2009:157-158)도 지적받았다. 이러한 지적 역시 이 분야의 연구가 총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가짐을 역설한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윤경화는 여성부가 2개년 간 공동협력사업으로 여수, 군산, 시흥에서 시행한 ‘다정한 이웃 건강한 마을 만들기’에 가담하여 사업을 진행한 당사자로서 1년차 사업에 대한 정리를 해 냈다. 이 연구 역시 많은 구체적인 정보를 보여주고 있으나, 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1단계 사업의 성과가 2단계 목표에 대해 가지는 연관성은 무엇인지, 주민의 자발성과 공적 지원이 얽히는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지적(김선미, 2009:129-131)을 받고 있다. 이 연구 역시 사업의 관련자들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이

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며, 질적 연구를 실시하여야 민간단체와 관이 협력하여 이웃 만들기과 마을 만들기를 주도해 보려는 노력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 가족친화 지역사회 혹은 가족친화마을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부터, 가족친화마을의 정의, 사례에 근거한 모형,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경과과정, 가족친화마을의 형성·확산·전환의 단계적 성격 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사례를 분석한 후에 우리는 선행연구의 이러한 결과와 비교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가족친화마을과 가족친화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및 공동협력사업 등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의 필요성과 그에 적합한 질적 연구방법의 필요성도 살펴보겠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 연구의 질문은 두 가지이다. 첫째, 마을도서관과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족친화적 마을의 거점으로서 사람들의 생활과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가? 둘째, 마을도서관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가들의 일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이 두 연구문제의 연관성은 장(場)과 사람과의 관련성에 있다. 먼저, 주민들이 ‘좋은 삶’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그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은 가족친화마을의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일차적 요소이다. 직장과 가정, 혹은 학교와 가정이라는 두 개의 분리된 공간으로 압축된 도시인의 삶에서 잃어버린 공간이 바로 이러한 성격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의 핵심은 장의 지향에 맞게 생각하고 활동하는 사람 곧 주민(住民)이다. 주민들은 이 장을 토대로 하여 다른 장을 만들

어 갈 수 있다. 최근에 ‘마을을 만들다’는 표현을 하는 것도 이처럼 관주도에서 시민주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시민의 자각과 책임으로 만들어 가는 마을이 최근의 경향이다(이송지외, 2009: 35). 유창복(2009)은 ‘성미산 사람들의 마을하기’라는 표현으로 가족친화마을의 형성에서 주민들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2. 연구과정

총체적인 맥락 안에서 살기 좋은 마을의 거점을 확인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경기도 용인 수지에 위치한 사립(私立) 공공도서관 느티나무도서관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이상적 사례'로서 준거적 선택을 하였다.

이 두 거점을 선택한 이유는 도시에서 가족친화 지역사회를 조성할 때 가장 보편적인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마을도서관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수지의 느티나무도서관과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선정한 이유는 연구자들이 미리 조사한 결과,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활발하며 가족친화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연구자들의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에 협조적이어서 연구 수행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요 자료는 참여관찰과 관련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기초연구로서 연구대상에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다룰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제보자의 숫자를 제한하였다. 특히 자원 활동가의 경우는 경험과 활동의 내용이 반복되는 지점에서 추가

면접을 중지하였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이 연구에서 심층면접한 회장과 문천국씨 이외에 원탁토론에 참여했던 나머지 세 사람의 경우, 녹취와 전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나 그들의 입주자대표회의활동에 대한 가담의 정도나 그리고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공유의 정도, 아파트단지의 문제에 대한 의식에 대하여 중요한 자료를 획득하였다. 그 밖에 보조적인 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혹은 이 두 곳에서 펴낸 게시물이거나 출판물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면접의 진행은 2009년 8월 6일 느티나무도서관 1차방문과 관장 면접 → 2009년 9월 30일 동부아파트입대위회장 면접 및 입대위회원 및 동호회 5인과 좌담 → 2009년 10월 15일 느티나무도서관 2차방문과 관장 단독 면접 및 자원활동가 3인 동시면접 → 2009년 10월 16일 성미산마을 방문 및 마실 현장 방문, 그리고 면접(보조 자료로 활용함!) → 2009년 12월 23일 동부아파트입대위회원 면접 순서로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은 최대한 포괄적인 자료를 얻고자 비구조화된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들의 생활 전반에서 도서관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차지하는 생활의 비중과 특성을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점차 도서관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서 대조질문과 반대질문을 통해 응답을 명료화하고자 하였다.

매번 면접을 종료하고 곧 바로 두 연구자는 면접결과에 대한 대략의 스케치를 작성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파생된 추가 질문이나 추가 면접대상을 선정하였다. 제보자들의 동의 를 얻어 면접한 모든 내용은 녹취하고 전사하

1) 미산마을은 1994년 젊은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고민으로부터 출발해 만들어진 공동체이다. 그러다가 점차 생활협동조합, 유기농 반찬가게 동네부엌 등 먹을거리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가기 시작했고, 이후 마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자생조직과 활동들-성미산학교 건립, 동네주민들의 만남의 장인 작은 나무카페, 성미산차병원 운영, 마을축제 기획 및 운영, 각종 동호회, 성미산마을극장 개관 등-을 만들어 냈다.

〈표 1〉 제보자의 일반적 특성, 면접 일정, 그리고 활동 특성

| 이름(연령) | 일반적 특성 | 면접일정 | 가족친화마을관련 활동 특성 |
|---------|------------------------|------------------|----------------------------------|
| 박숙자(44) | 도서관관장, 3자녀: 중2, 초5, 5세 | 2009.8.6/ 10.15 | 마을도서관의 설립과 운영 |
| 신민호(54) | 대학교수, 1자녀: 대1 | 2009.9.30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 서가희(33) | 도서관실무자, 2자녀: 초2, 중2 | 2009.10.15 | 마을도서관 독서회회원, 前자원활동가 및 現 실무자 |
| 강소연(40) | 전업주부, 2자녀: 초6, 6세 | 2009.10.15 | 마을도서관 독서회회원, 前공부방교사, 現자원활동가회장 |
| 이미선(37) | 전업주부, 2자녀: 초3, 초4 | 2009.10.15 | 마을도서관 독서회회원, 책보수자원활동가 |
| 문천국(49) | 농협지점장, 2자녀: 대1, 고3, 중1 | 2009.9.30/ 12.23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
| 탁석민(41) | 변호사, 2자녀: 초1, 6세 | 2009.10.16 | 성미산마을 주민, 前공동육아어린이집이사, 現학부모 |
| 청순혜(39) | 고문서번역가, 2자녀: 초1, 6세 | 2009.10.16 | 성미산마을 주민, 공동육아어린이집 학부모 |
| 정유란(34) | 전업주부, 2자녀: 초1, 4세 | 2009.10.16 | 성미산마을 주민, 공동육아어린이집 학부모 |

*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였다. 자료로부터 각 거점의 특성을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하여 분석하였고 참여자들의 체험과 해석도 추출하였다. 이 분야 전문가로서 제3의 비판적 독자 그리고 가족친화마을과 관련된 선행연구들, 그리고 성미산마을에 대한 탐방과 그 주민과의 면담자료를 통하여 연구의 결과를 검증하였다.

<표 1>에 제보자의 일반적 특성과 면접 일정 그리고 마을도서관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활동특성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우리와 면담한 제보자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느티나무도서관의 활동가들로 면접당시 박숙자 관장은 44세로 중2와 초5 그리고 5세의 세 자녀를 두었고, 이미선씨는 37세로 3학년과 4학년 자녀를 두었으며, 서가희씨는 33세이며 초2와 중2의 자녀를 강소연씨는 40세로 6세와 6학년자녀를 두었다.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54세의 신민호회장은 현재 건축학

과 대학교수이며 대학교 2학년 자녀와 전업주부로 된 가족이 있다. 문천국씨는 49세로 농협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대학교 1학년 고3 중1의 세 자녀와 전업주부로 된 가족이 있다. 탁석민씨는 개인법률사무소의 변호사이며 41세로 39세가 된 취업주부이다가 현재 아이를 돌보기 위해 프리랜서로 전향한 아내와 7세와 9세의 두 자녀가 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연구한 내용 즉 연구의 결과는 ‘설정된 연구 문제에 답하는 방식의 연구문제별 접근’(조용환, 2009)을 따라 진술하고자 한다. 먼저, 느티나무도서관과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족친화적 마을 만들기의 거점으로서 사람들의 생활과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가를 살펴본 후, 느티나무도서관과 동부센트레빌아

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들과 활동가들의 활동의 특성을 살펴보자.

1. 느티나무도서관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장(場)으로서의 특성

1) 느티나무도서관

느티나무도서관은 2000년에 경기도 용인의 수지지역의 상가지하에 세워져 2003년 4월 정규장좌를 열고 9월에 법인 설립허가를 얻었으며, 2007년 11월 현재 장소로 이사하고 사립공공도서관으로 등록하였다. 도서관의 홈페이지와 관장과 자원활동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도서관을 탐방해서 참여관찰을 한 결과를 종합하여 이 도서관이 주민들의 생활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1) 책과 시청각자료를 읽고 보고 듣고 또 빌려 갈 수 있는 곳

느티나무도서관은 그야말로 책을 읽을 수 있고 빌려갈 수 있는 곳이다. 나이와 사는 곳 국적 모두 상관없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한사람 회원과 한식구 회원으로 회원이 될 수 있고, 가입비는 무료이며, 한 사람이 책5권을 2주 동안, 그리고 DVD, 비디오, 만화, 영어·일어·네पाल어·몽골어 등 여러 나라 말 책을 1권씩, 1주 동안 빌려갈 수 있다.

휴관일인 목요일을 제외하고 날마다 오후 3시가 되면 책을 읽어주는데, 월/화/수/금요일에는 ‘이야기아줌마’ 자원활동가와 사서 그리고 첫째 일요일에는 대교어린이방송 성우실 식구들, 셋째일요일에는 CLC용인이주민센터식구들이 그림책을 읽어준다. 수요일 오후 4시부터 30분 정도는 슬라이드로 만든 그림책을 환등기로 비춰가면서 ‘이야기아줌마’가 읽어준다.

대구에서 수지로 이사 온 서가희씨에게 도서관은 “그 많은 책을 집에서 사서 읽는 것 보

다 공유를 통해 가정의 자원을 아낄 수 있는 곳 그래서 처음으로 들른 곳”이었다. 이 도서관은 ‘신간과 다양한 책을 두루 구비한 마을도서관 그리고 입시나 고시 공부하는 분위기와 다른 곳, 엄마와 아이가 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책이 구비된 곳’이다. 개별 가족이 갖출 수 없는 책과 자료 그리고 공간을 다른 가족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곳이다.

(2) 사람들을 만나 생각을 공유하고 공동의 삶을 기획할 수 있는 곳

느티나무도서관은 사람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지은이만남’은 지은이를 초대해 책 이야기와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사인받기를 한다. 그리고 사랑방은 일터에 나가느라 도서관에 자주 오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저녁시간인 7-8시에 모여 차도 마시며 영화도 보고 낭독회도 하고 이야기도 나눈다. 또 연례 행사로 김밥잔치가 있는데, 5월5일 동아리와 자원활동가들이 김밥을 준비하고 특집이야기극장, 줄다리기, 달리기가 열린다.

그런가하면, 책과 삶을 나누는 모둠활동으로 꼬마또래방이 있다. 토요일 오전 8세미만 어린이와 돌보는 사람이 함께 하는 모임으로 요리와 나들이 등 돌아가면서 놀거리를 준비한다. 그리고 느티나무 독서회도 요일을 다르게 하여 매일 오전 10시에 여러 개의 독서회가 굴러간다. 독서회는 회원들로 하여금 삶의 기본적인 가치부터 재고하고 성찰하는 지속적인 기회를 가지게 하여, 모두 함께 성장하는 그룹으로 형성되어간다. 일단 만들어진 모듬은 도서관에서 다른 자원 활동을 발견해 내거나, 다른 주제의 독서회를 만들기, 혹은 독서회회원 전체는 아니지만 회원끼리 도서관 외부에서 방과 후 학교 운영, 생협 활동, 대안초등학교 운영 등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등 창조적 만남의 공간을 열어간다. 또 도서관건물의 같은 사무실에 있

는 환경운동단체인 ‘환경정의’에서 하는 마을 모임참여와 지역에서 열리는 근거리 농산물 직 거래에도 독서회회원들이 참여하곤 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유사한 가치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종류의 삶을 경험하는 것에 자원 활동도 있다. 청소년활동가들과 어른활동가들은 ‘느티나무도우미회’로 활동한다. 책 대출과 반납, 책 싸기 보수작업, 주1회 이야기 극장(슬라이드로 그림책을 크게 작성해서 읽어주기; 어린이 30-40명 많을 때에는 80여명), 북 카페, 관리자 지원 등을 한다. 기업에서 오는 남성으로 된 단체 자원활동가들은 월1회 장난감 세척, 책 싸기, 유리창 닦기 등을 하는데, 자신들의 좋은 경험을 나누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더 데리고 오고, 아내를 비롯하여 가족과 함께 오기도 한다.

이처럼 이 도서관은 주민들의 일방적인 이용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무수히 이끌어 내는 공간이다. 금전적 후원(크게는 토지의 구입비용과 건물건축비용으로부터 매월 운영비의 후원과 같은)과 물질적 지원(책이나 미끄럼틀 혹은 청소년 활동을 위한 재료의 지원 등) 그리고 자신의 재능과 활동을 제공하여 다른 사람과 나누고 도서관과 꿈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 어린이도 어른도 이주민도 장애인도 누구나 편하게 갈 수 있는 중간지점

주민의 활용 폭을 넓히기 위해 초기의 ‘어린이 도서관’의 모습을 벗고 이름도 바꾸어서 ‘그냥 도서관’으로 개칭하자, 남자들도 나이든 노인들도 청소년들도 ‘그냥 올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어린이 도서관이면, 엄마와 아이들만 가는 도서관처럼 되서 다른 사람들이 배제되거나, 그 곳에서 자란 어린이들도 청소년이 되면 가기 어려운 곳이 되죠(서가희 씨).”

건물을 설계할 때에도, 활용 계층을 넓게 하기 위한 배려로 1층은 아이들과의 근접성을 (아이들 책, 그리고 책읽어주기 공간), 2층은 공부 분위기(역사·사회·자연책 배치, 노트북 등을 활용하되 열람실은 배제)가 주요 요소였다고 한다. 그 결과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주요 이용자였던 처음과 달리 남성들도 나이에 상관없이 ‘편한 옷차림에 그냥 와서’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노트북도 들고 와서 시간을 보내다가 간다. 시간이 갈수록 아이와 함께 오는 아빠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저녁 강좌에 아내와 함께 오는 남성 직장인도 많다.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간다. 떠들면서 논다고 야단맞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들을 끌고 올 수 있는 곳’이고, ‘수시로 올 수 있는 곳’이며, ‘우연한 일과 만남이 기대되는 곳’이다. 도서관은 이들을 늘 반갑게 맞아주고 개인적인 이름을 기억하고 개인사에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이들에게 적절한 ‘비행(飛行)클럽’이라는 청소년 대상 집단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다. 이 주말

2) 느티나무 도서관의 비행 클럽 ; 느티나무도서관에는 청소년이 모이는 비행(飛行)클럽이 있다. 도서관의 관장은 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비행클럽을 만들었다. 5학년부터 22세까지 명단에는 30명 정도의 회원이 있는데 10명에서 15명이 매주 토요일에 두 시간 정도 모임을 갖는다. 모임의 큰 틀은 격주로 하여 멘토가 운영하는 주와 자유주제로 만나는 주가 이어진다. 수화를 하는 멘토가 이끄는 주에는 수화와 수화노래를 배우고 도서관에서 보여주기 위한 수화공연을 준비하는 한 주, 인터넷기자인 멘토가 글쓰기를 인도하는 한 주, 여성멘토가 자유롭게 인도하여 서울 가기, 사진 찍기 등 청소년들과 함께 할 일을 결정하여 만나는 한 주, 그리고 도서관 직원이 멘토가 되어 이끄는 한 주-요즘은 아프리카 신생아의 저체온증예방을 위한 신생아용 모자 뜨기-이런 식이다. 격주마다 만나는 그야말로 자유주제 만남으로는 영화보기, 요리하기, 놀기, 공연가기 등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한다. 비행클럽의 어떤 회원들에게 도서관은 일터-북카페에서 아르바이트이자, 집-학교에 안 가는 아이는 따로 배우러 외부에 나가는 시간 이외에 여기에 머문다-이자, 꿈터-나중에 이 도서관에서 일하는 것

청소년클럽은 도서관으로 하여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폐쇄성과 규율이 엄한 학교와 집의 중간 지점이며 자율성의 영역이 되게 한다.

또한 도서관은 아이들이 자원 활동하는 엄마를 만나거나 엄마 아빠와 함께 올 수 있는 곳이다. “도서관의 모든 활동은 아이들을 평가하지 않고 활기를 살리는 방식을 고수한다(도서관장).” ‘돈 받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 해라. 시간도 정하고 프로그램 진도도 정해서’라는 식의 소위 ‘조직적으로 하라.’는 편견과의 싸움이 계속되지만 도서관은 ‘유기적 활동’을 지향한다. “아이들이 여기 오면 하고 싶은 일이 많고 다 잘 된대요. 아 그냥 학교가 느티나무 같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느티나무가 학교 던지라고들 말해요(도서관장).”

아동을 양육하는 힘든 어머니들은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 오되 아이들을 떼어 놓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놀아도 제재를 받지 않고, 또 어울릴 수 있는 다른 아이들도 있고 책도 있고 미끄럼틀이나 실내 그네 그리고 누울 수 있는 마룻바닥 등 놀이공간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에게서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고 그 시간에 엄마는 쉬기도 하고 책도 읽는다. 도서관이 없었다면 집에 갇혀 있거나 백화점에서 소비로 시간을 보낼 학령기자녀를 둔 엄마들이 오전 시간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자기만의 공간인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은 이주민이나 장애인주민에 대해서도 섬세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서비스로 베트남·몽골·스리랑카·네팔의 책과 한국 책을 준비하여 인근에 있는 이주노동자센터에 찾아가서 이주노동자들의 나라 책과 더불어 한국문화도 알릴 한국 책도 보낸다. 향후, 파키스탄·방글라데시 책도 만날 수 있게 준비 중이다. 그리고 매월 한 번 여러 나라 책

을 모국어와 한국말로 함께 읽는 서로 알아가는 자리도 마련한다.

그리고 문턱을 없애고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넓은 화장실을 두어 휠체어를 이용하여 도서관 구석구석을 이용가능하게 하였으며, 독서확대기와 보이스아이 스크린리더와 같은 독서 보조 장비, 그리고 점자책과 녹음도서 점자안내사인 점자프린터 구비로 눈이 안 좋아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부센트레빌아파트는 광주광역시에서 2002년 11월 입주하고 16층에서 20층까지 전체 8개 동에서 35평 458세대, 44평 228세대, 53평 80세대, 65평 38세대, 총 804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이다. 이 아파트단지는 설립 후 차 없는 환경, 공원과 같은 단지, 금당산 주변의 자연 환경 등 하드웨어가 아주 좋아 전국에서 살기 좋은 아파트 상 2위를 수상했다고 한다. 그러나 “입주한 후 5년간의 암흑기 즉, 대부분 주민의 무관심과 사익을 추구하는 전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아파트단지의 공익이 방치된 상태(문천국)”를 지나 2007년 12월 발생한 문제 상황, 즉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공금횡령이라는 문제 앞에서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원들은 선거에 대표를 보내 회장으로 당선시키고 그때부터 입주자대표회의 일을 시작하였다.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는 2003년 4월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와 2008년 5월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출범하였다. 현재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과 총무 이사가 각 1명 그리고 감사가 2명이며, 10명의 라인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장하는 아파트는 (<http://www.pdcenter.or.kr>) 편안하고 안락한 삶의 터전이 되는 아파트, 이주민으로서 자부심

이 꿈이다. 비행클럽회원들은 도서관에서 간식이나 식사도 함께 할 수 있다(김선미, 2009).

을 느낄 수 있는 아파트,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아파트, 주민과 자치기구가 하나 되는 아파트, 공동주택의 장점이 최대한 확보되는 아파트, 생활문화와 교육이 실천되어 삶의 질이 높은 아파트, 광주의 시범적인 살기 좋은 아파트, 광주문화수도 이미지에 적합하게 변화될 수 있는 아파트이다.

(1) 입주민의 사적 이익의 극대화과 단지 내 최상의 공공재 공급을 결정하는 곳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회원과의 심층면접에서 얻은 자료를 통해 볼 때,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와 삼각 체계를 형성한다. “입주민의 사적인 이익과 더불어 공적인 부분을 잘 만들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주민의 잠재적 욕구를 파악해야 하고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통해 그러한 욕구들을 충족시켜야 한다(신민호).” 입주자대표회의가 현재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두 가지다. 첫째, 전임 입주자대표회의의 부정적인 활동의 결과와 관행을 청산하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아파트문화를 일구어 내는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의 관리업무와 달리 주민들의 요구를 보다 진취적이고 창의적으로 수렴하여 관리사무소를 통제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건설사와의 하자보수 관계 그리고 아파트시설 유지와 관련된 각종 계약과 지출에서 이권에 개입할 수 있고 주민의 무관심아래에서는 공익을 희생하고 사익을 얻기에 유리한 곳(문천국)”이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으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법과 행정과 모든 재산을 집행하는 기구이므로 소신과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전 입주자대표회의와 비교할 때, 현 입주자대표회의는 기획 회계 행정 컨설팅에서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주민-행정전문가 전직 교육감, 등 그리고 현직 회사 임직원 들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새 입주자대표회의이후 세대별로 월5천 원 정도씩 관리비가 경감되었다. 경비용역 청소용역 엘리베이터 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이 뜻을 모아 체결한 결과라고 한다.

“잘못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 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비위를 맞추고 주민들 돈은 사고… 이권이 개입되지 않으면 주민에게 가장 유리하게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 중에 관련 분야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싼 가격에 계약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료 공개하고 설명회도 가지니까 소장도 잘 하게 된다… 가격을 낮추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로 할 수 있다. 잘못된 입주자대표회의는 비싼 가격에 서비스도 엉망이다. 그렇게 되면 환경이 쾌적하지 못하고 주민들은 집으로만 들어온다(신민호).”

입주자대표회의 교체 이후 채용된 신임 관리소장은 직원들의 대(對)주민 업무태도를 개선하였고, 개별 가구 간 누수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공용부분에서 합법적으로 검토할 사안 등을 먼저 검토하여 세대 간 분쟁을 줄이고자 한다. 주민의 권익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동심합의로 협력하는 모양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청산하고자 하는 부정적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는 건설사와 입주민들에게 적절한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타협해 낸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새로 세워진 아파트 단지가 이 아파트의 조망 권을 침해한 데 대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전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 사람들이 횡령한 부분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고 책임을 묻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또한 그 간 방치되어 온 보육시설의 임대료 수익을 발생시켜 추석과 설 명절에 주민들에게 음식물 쓰레기통과 쓰레기 봉투를 각각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헬스클럽도 관리자에게 위임하는 대신 자치관리로 변경하여 청소용역만 전문 청소도우미에게 맡기고

개폐시간을 이용자위주로 변경하여, 추가회원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수익이 늘어 기구를 확충하는 등 선순환구조로 변했다.

또한 아파트 건립 때부터 엘리베이터로 연결되지 않는 지하2층 주차장을 주민들이 잘 활용하지 않으면서, 몇 대의 장애인차량과 관리사무소에 업무를 보러오거나 이사 및 택배와 관련된 일시주차를 위한 공간만 허용되어 있는 지상의 공원구역에 불법주차하거나 지하1층의 주차구역 밖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많은 것이 문제였다. 현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차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민의를 모아 2대 이상의 차를 가진 세대로 하여금 두 번째 차량을 지하 2층에 주차하도록 구별되는 스티커를 부여하는 새로운 주차규정을 마련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주차질서를 세워가고 있다. 또 아파트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주민 간 의사소통의 통로를 얻기 위해 홈페이지를 꾸렸다.

“유일하게 우리 아파트만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다.”³⁾ 120만원에 만들고 월2만원에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그 간의 자료를 정리하여 공개하고 공유하고자 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 그만 뒤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활동의 지속성이 확보될 것이다. 또한 주민간 상호교류나 건의사항 등을 원활하게 하고 아파트생활사진 올리기 등으로 활성화할 방안을 가지고 있다(신민호).”

(2) 가족의 벽을 넘는 마을공동체의 만남의 장, 일상문화 창조의 구심점

한편, 적극적인 의미에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의 창조적 대안을 실현할 수 있는 거점이 바로 입주자대표임을 동부센트레빌아파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우선, 건축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회장은 공적인 공간을 주민의 일상적인 문화 공간으로 단장하였다. 아파트입구에 쓰지 않던 독서실자리를 사랑방으로 꾸며 만남의 장소로 변경하였다. 사랑방은 일시적인 만남 혹은 기다림의 장소 또는 춥거나 더울 때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고, 향후 반상회나 개별가족의 소모임장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그 옆 공간은 갤러리로 꾸며 장터도 열고 아이들의 작품도 전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이웃 간 친밀감을 형성하고 공동체의식으로 성숙시켜가기 위해 요가와 헬스 그리고 스쿼시 동호회를 후원하고 있다. 후원의 내용은 공간의 제공과 모임에 대한 지원금이다. 실제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스쿼시동호회에서 추천되었고 현재도 스쿼시회원들과의 주3회 운동과 친목을 통해 심리적 지지와 실제적 도움을 얻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현안을 수집하고 의결하기 위한 기초단위로 반상회를 활성화하고자 주도적인 노력을 하는 곳도 바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라인의 대표를 뽑고, 반상회모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그러나 아직 반상회는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사적인 공간인 개별가족의 영역인 아파트 실내에서 반상회를 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사랑방이나 노인실 또는 회의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 주민 대상 영화제와 음악제를 열었고, 장기자랑과 같이 청소년 경비원 및 관리사무소 직원 그리고 대다수 주민의 참여가 점점 높아지는 문화적인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문화행사는 일상적이되 공공의 공간에서 수행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과의 초기 접

3) 아파트의 경우에도 두 개의 홈페이지가 있다. 광고게시를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모든 아파트마다 있는 무료홈페이지 있고 자체홈페이지가 있으며 자체홈페이지는 회원이 250명에 이르며 아직 쌍방향 혹은 다자간 의사소통이 활발하지는 않지만 아파트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점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아파트의 문화제에는 입주자뿐 아니라 인근의 주민들까지 참여하였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심의 영역을 넓혀 학교 운영위원회로 진출하여 학교와의 상생도 모색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의 환경변화·보도블록의 교체나 주변상가의 간판, 가로등의 교체 등을 통한 물리적 환경의 심미화·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주민의 지지와 공감대를 근거로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변경하고 새로운 정책 투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바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신씨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주민들이 가정을 떠나 공용공간에서 만나 마음을 여는 것이 아파트 문화 창조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렇게 아파트에서 열리면 학교에서도 열리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학부모로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좋은 학교를 만들고 결국 우리아파트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신민호).”

다만, 현재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역사는 2년에 불과하다. 시작단계에서 문화적 이벤트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도서관의 경우, 독서회라는 주민들을 동질화시키는 모임을 통해 여러 가지 자원 활동과 자원활동가가 나와 도서관에 생기를 가져온 점을 고려해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이 보다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동호회와 반사회가 지속성을 가지는 모임인데 소수의 주민만이 참여하는 한계점을 볼 때, 보육시설이 있는 공간을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어도 많은 주민간의 지속적인 만남을 위해 좋을 것 같다.

이제까지 우리는 마을도서관과 입주자대표회의가 각각 주민들의 삶과 가지는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마을도서관은 1)책과 시청각자료를 읽고 보고 듣고 또 빌려 갈 수 있는 곳 2) 사람들을 만나 생각을 공유하고 공동의 삶을

기획할 수 있는 곳 3)어린이도 어른도 이주민도 장애인도 누구나 편하게 갈 수 있는 중간지점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1)입주민의 사적 이익의 극대화와 단지 내 최상의 공공재 공급을 결정하는 곳 2)가족의벽을 넘는 마을공동체 만남의 장, 일상문화 창조의 중심점이다.

이러한 마을도서관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들의 생활과 가지는 관련성이란 마을도서관이 없었을 경우,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제 역할을 못 할 경우에는 상상하지 못할 영향력을 가진다. 비록 느티나무 도서관과 동부센트레빌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해도, 성격상 이 두 거점은 첫째, 공공재를 창출하고 개별 가족들의 전체적인 관리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가족이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를 넘어 가족에게 보다 큰 효용을 가져다준다. 둘째, 심리·사회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핵가족의 한계를 넘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의존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셋째, 보다 적극적으로 개별 가족 안으로 다시 환류할 수 있으며 전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는 공동체 문화의 형성에 대한 담론의 형성과 노력의 집합체를 산출한다.

차성란(2009; 74)에 따르면, 가족친화마을 만들기는 물질적 요소를 포함한 공간 만들기, 돌봄과 여가, 문화체험을 위한 시스템 만들기, 마을 만들기를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핵심자원인 인적 네트워크 만들기로 요약하였는데 이는 공간이나 시스템을 만들기에 필수적이다. 마을도서관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특성을 살펴 본 결과 각각 다른 수준에서 공간 만들기, 돌봄과 여가, 문화체험 시스템 만들기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 만들기의 성과를 자연스럽게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거점은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중요한 거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차성란(2009:75)이 제

시한 가족친화이념에 비추어 볼 때에도, 통합성과 공동체정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살림의 정신을 근간으로 하므로써 마을도서관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가족친화마을의 분명한 거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마을도서관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인적자원 인 활동가들

마을도서관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하며, 그러한 활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심층면접 자료를 통해 두 거점에서 각 활동가들의 체험의 특성은 무엇이며, 그러한 체험에 대하여 그들은 어떻게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1) 느티나무도서관의 활동가들

(1) 도서관의 지향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사람; 도서관 관장

“어른들이 살아야 애들도 산다.”

“그냥 열려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울타리 없이 그냥 나무 하나 있어서 느티나무(관장)”

먼저 도서관 설립과정에서 관장의 체험을 적어보자. 어려서부터 ‘어린이들의 보모’라는 별칭을 갖고 있던 박 관장은 대학생시절부터 상계동빈민가에서 공부방을 해왔고, 사회변화를 위한 학습과 활동을 함께 해 온 남편과 공부방에 대한 장래의 전망을 공유해 왔다. 결혼 후 첫 아이의 사산 충격으로, 두 아이를 더 낳는 동안 관장은 육아에 몰두하여 그 상처를 치유 받았다고 한다. 경제위기 때 ‘하필 벤처기업으로 옮긴’ 남편의 줄어 든 소득 때문에 전세 값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수지로 이사하였고, 그 때 관장의 집에 많은 아이엄마들이 드나들었다. 그 무렵 수지는 개발로 인구유입률

이 전국 최고였었는데, 개발에 따른 원주민들의 참상도 그리고 그로 인해 갈 곳 없는 아이들도 눈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때, ‘뜻밖에도’ 박관장 남편의 회사가 주식을 상장하자 집 한 채 살 돈이 생겨 그 돈으로 상가지하에 공간을 마련하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문화적 공간과 시간 그리고 관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책을 가져다 두고는 사립 문고라는 형태로 어린이도서관을 시작하였고, 함께 아이를 키우던 아줌마들이 처음부터 함께 했다. 모든 것이 영성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었다고 한다. 어린이도서관은 위층의 슈퍼마켓과 약국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주변의 어린이 놀이터에 놀러온 아이와 엄마들이 물과 약, 휴지, 포대기가 필요해서 드나드는 곳이 되었다. 사진을 넣은 대출카드를 나눠주자, 그 카드에 관심을 가진 아이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왔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관장은 발달이 느린 아이들을 돌봐주고 주부를 대상으로 독서회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구체적인 밑그림이 없이 시작하였는데, 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강좌도 들어오고, 발달장애아동들의 특수교육에 드는 비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자구책으로 만든 뜨개질 교실도 해 보는 등 필요에 의해 다양한 진화를 거듭했다. 이용자가 늘고 공간 제약이 커질 무렵 어느 한 이사(理事)가 현재의 신축도서관을 헌납하여 이사하였다.

이제 리더로서 도서관의 지향을 제시하고 고수해 가는 관장의 모습을 살펴보자. 첫째, 책을 읽고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역사 공부를 시작하여 주부들로 하여금 근대적인 교육제도와 아이들과 부모와의 관계를 성찰하게 하였다. 둘째, 관장은 초기부터 계층 나이 성별 구분 없이 통합적인 만남이 주는 힘을 자각하고, 어린이 자(字)를 빼서 어린이와 엄마이외의 사람들도 오도록 하였다. 셋째, 관장은 자

원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하도록 했으며 통제를 최소화하고 공간과 스케줄 조정만 하였다. 그는 자유와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느슨한 운영을 강조한다. 이를테면, 자원활동가도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것이 지속성의 비결이라고 본다. 넷째, 관장은 도서관이 만남의 장이 되기를 소망한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진정한 만남을 희구한다는 점은 관장이 현재의 가족에 대해 언급할 때 보다 분명하다.

“혈연중심의 가족이 아니라, 그 혈연중심의 가족관계의 강화가 아니라, 그 가족도 집 바깥 마을 어떤 공간에서 만나면서 늘 곁에 있지만 만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만나는 기회가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주어진 몫이라고 그냥 받아들여버리면 정작 관계가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관장).”

이 때 책은 ‘사람을 일깨우는 것’, ‘당연히 받아들여 온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매체’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관장은 도서관을 통합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소외계층, 어린이, 학생 등 특정 용어의 사용 배제하고자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상적인 문화를 강조한다.

“일상성, 일상성이 중요해, 막 이러면서 문화 이런 게 너무 이벤트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문화라는 말은 정말 문화적이 되려면 삶이 일상이 문화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 막 이러면서 애가 하나가 와도 책 읽어주는 시간에 안 오면 그냥 한 명… 그런데 일상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아웃풋(결과물)이 없다(관장).”

도서관을 만들어서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하려는 일에 사람을 끌어들이고자 도서관을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도서관을 세우겠다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빠르고 쉽게 하려고 그리고 야심으로 하려고 하면 지금 느티나무와 같

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관장은 그들을 돌려보낸다고 한다. 도서관은 그 자체의 생명력이 있고 대상화되어서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연구자는 도서관을 지역과의 소통의 통로로 수단시 하는 것 즉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도서관은 그 자체 살기 좋은 마을의 하나의 거점이지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의 거점이 아닌 것이다.

(2) 도서관을 살아있게 하는 사람들; 서비스의 제공자이자 그 수혜자인 자원활동가

“봉사라기보다는 자발성을 갖고 이 활동이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유익하고 기쁨이 되는 것이라, 서비스제공자가 아니라 서비스를 함과 동시에 내가 그 기쁨을 가져가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개념으로 자원활동가라는 말을 그러니까 자발성을 더 강조하자는 뜻으로 쓰려고 해요(강소연).”

전업주부로 있다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도서관상근자로 일하거나 여전히 전업주부인 강소연씨, 서가희씨, 이미선씨 등 세 명의 자원활동가와 면담한 결과, 그들이 벗어나고자 한 삶과 추구하고자 하는 삶에 공통점이 있었으며, 벗어나고자 하는 삶과 추구하는 삶이 서로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이들은 모두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동교육과 모성역할의 주어진 각본에 대한 성찰과 거부 그리고 자신의 개별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었다. 먼저 세 명의 자원활동가가 어떻게 마을도서관과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기술해 보자.

2004년에 대구에서 수지로 이사 온 이미선씨는 대구에서도 공동육아를 했고 도서관을 이용했기 때문에 수지에서도 마을도서관을 애써 찾아 그 주변으로 이사 왔다. 현재 이미선씨는 도서관에서 책 보수 자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벌써 상당한 전문성이 축적되어 지

방의 도서관에 강연도 간다. 독서회와 자원 활동으로 주 2회 정도 도서관에 온다. 처음에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책 읽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도서관에 왔으나, 독서회활동을 통해 ‘어머니로서의 삶’ 못지않게 자신의 ‘개체로서의 삶’이 중요함을 깨닫고, 아이와 남편과 별개인 자신의 삶의 가치를 깨달았으며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또 서가희씨는 대구에서 남편의 직장근처인 용인으로 이사 왔는데, 책을 좋아해 아이와 함께 도서관을 이용하다가 독서회를 하고 자원 활동에 가담하여 3년 전부터 도서관살림살이를 하는 상근자로 근무하게 되었다. 서가희씨의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은 학교가 끝나면 바로 엄마가 일하는 도서관으로 와서 지내다가 함께 퇴근한다. 서가희씨의 아이는 도서관에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도서관 안내를 해 준다.

또한 강소연씨는 수지에 문화시설이 전무하던 시절 어린이도서관에서부터 공부방교사를 하였다.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밥을 해서 먹이고 또 연극이나 독서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그러다가 남편의 외국 파견근무로 독일과 헝가리에서 육아에만 전념하다가 2년 전 느티나무 도서관에 다시 복귀하였다. 강소연씨는 느티나무도서관 때문에 다시 수지로 이사했다고 한다. 지금 강소연씨는 자원활동가회의 회장이며 독서회와 자원 활동 및 도서관 관련 스터디를 위해 주2-3회 도서관에 온다. 그런데 강소연씨는 서가희씨와는 달리 자녀들과 도서관을 별개로 생각한다. 굳이 자신의 자녀를 이 도서관으로 데려오지도 않고 또 어린 자녀의 경우 자신의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희생되는 면도 있겠지만 그런 희생도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남편은 강소연씨에게 동조적이다. 이 부분은 자원활동가들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이제 이들이 도서관에서의 자원 활동을 통

해 벗어나고자 하는 것과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강소연씨와 이미선씨는 모두 자기 아이의 교육에 집착하는 삶, 무비판적으로 경쟁적인 학교교육을 받는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매몰된 삶, 내 삶이 아닌 엄마로서 만의 삶에서 탈피하고자 하였다.

이미선씨는 결혼 후 안주했다가 자녀가 독립성이 생기면서부터 존재감에 대한 혼란을 겪었을 때 독서회를 시작하였다. 이미선씨는 “공부를 하고 자원 활동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내가 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존심이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었죠(이미선).”라고 한다. 강소연씨도 “자녀교육열풍에, 그것이 비록 소외감이 심했을망정, 발 맞춰가기 쉬웠을 삶에서, 가치관이 맞는 도서관 사람들을 만나 내 아이 중심의 보조자로서의 삶으로부터, 타의적 몰입으로부터 내가 중심이 되는 내 삶을 찾았다.”고 한다.

강소연씨는 도서관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아이의 교육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리고 아이는 어린이시절에 누려야할 몫이 있고 권리가 있는데....., 도서관이 아니었으면 회의(懷疑) 아니면 불만 정도밖에 가질 수 없었을 텐데, 여기서는 다른 가능성을 모색할 수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책값도 아끼고 도서관에 있는 책을 아이에게 읽어주려고 도서관에 왔던 서가희씨는 “가족과 친지도 없는 타지에서 큰 아이가 학교 가면 4살짜리 아이와 할 일이 없이 고립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을 텐데, 도서관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한다.

이들의 자원 활동의 결과의 핵심은 바로 개별화라고 할 수 있으며, 내용은 활기찬 삶의 회복이었다. ‘기혼여성이 엄마와 아내라는 주어진 역할 이외에 사람다운 삶을 위해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는 전업주부에 대한 연구 분

야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도서관은 바로 이들이 정체성을 획득하는 중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선씨는 직업정체성에 버금가는 신분을 획득했다고 한다. “나는 느티나무도서관 자원활동가(이미선)”, “우리 엄마는 책을 고쳐요(이미선씨 자녀).” 결국 이미선씨가 터득한 점도 “각자가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하다는 믿음”이라고 한다. 강소연씨는 자신의 활동을 시혜적인 봉사개념을 제외하고 자발성을 보다 강조하여 자원활동가로 재 개념화하였는데, 자원활동가모임 회장의 이러한 통찰은 도서관이 바른 용어를 채택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가들

(1) “문화중심도시의 핵심은 주민의 일상적 문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살기 좋은 세상 사람냄새가 나는 이웃사촌이라는 거죠... 내가 직장에서는 힘들어 하지만, 집에만 돌아오면 정말 우리 가족들이 있지만 또 다른 이웃들이 나하고 술 한 잔하고 운동같이 할 수 있는 친구 있으면 좋다 이거죠.”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되기까지 신민호씨의 이력과 생각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자신에게 주어진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원리원칙을 지키며 삶을 살아온 신민호씨는 대학시절, 자신의 능력에 맞는 수준에서 즉, 총학생회장이 아닌 단과대학 학생회장도 꾸준히 해왔다고 한다. 동부센트레빌아파트로 이사 온 후, 신민호씨는 “잘 못 되어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뛰어들지 않으면 죽을 때 후회할 것 같았다.”고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식인이요, 전문인으로서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신민호씨는 건축전문가로서 그리고 광주광역시 문화중심 도시만들기사업 정책자문위원으로서

10여 년간 다수의 사업을 해 왔는데, 문화중심도시의 근간은 ‘생활 속에 스며드는 문화여야 한다.’는 점에 천착하여, 그러한 꿈을 실현해 보려고 애초부터 하드웨어가 좋다는 이 아파트를 선택해서 이사 왔다고 한다.

꿈을 펼칠 기회를 기다리던 중 2007년 하반기에 수동적으로 공동대표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던 아내가 전해 준 아파트의 문제 소식에 차츰 ‘완벽주의 성향’인 신민호씨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파트단지가 영망인 상태라는 점 즉, 주민의 무관심, 사익을 쫓는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그 뒤에서 돈을 버는 변호사, 태만한 관리사무소로 인한 아파트전체의 방기된 상태 등을 알아내고, 신민호씨는 그러한 상황을 개선하거나 혹은 선거에서 탈락하더라도 최소한의 목소리를 내고자 출마하여 2008년 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되었다.

“내가 살아서 내가 무언가를 가족한테도 기여하고, 개인한테도 기여했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걸 내가 좀 했다면 내가 좀 보람된 삶이 아니냐... 내가 지식인이나 리더로서 그래도 어떤 재능이 있다고 보는데, 사회 리더인데, 이렇게 무관하게 있다면 그거는 내가 후회할 일이다(신민호).”

이렇게 해서 신씨가 출마를 결심하자 당시 고3이던 딸을 돌보던 것을 거두고 자립하게 하였으나, 딸도 아버지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자립했을 뿐 아니라 장래 아버지처럼 사회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이제, 그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되어 한 일들을 살펴보자. 그의 원칙은 ‘모든 사실을 공지하기’였다. ‘이익을 챙기려던 악질 변호사’를 끌어내고, ‘그 하수인에 불과했던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려 했는데, 관리소장은 먼저 그만 두고 떠나버렸다. 그 해 동부건설 하자문제 및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러한 결과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 그리고 시공사인 동

부건설에 모두 좋은 결과였다.

신민호씨는 부정적인 일을 시정하는데 투신하는 성격이고 그러한 가치관을 중시한다고 자평한다. 한 편으로는 이전 입주자대표회의의 부정적인 부분을 청산하고자 그 동안 방기된 아파트의 생활문화 가운데 아파트 실내에 그리고 단지 내 전단지 배포금지, 주차질서 확립, 쓰레기 특히 음식물쓰레기 합리적 처리에 대한 합리적 규정을 마련하였다. 다른 한 편으로는 새로운 아파트 문화를 창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질서와 원칙과 그리고 주민의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창의적인 부분에서 문화운동은 ‘늦더라도 꾸준히 그리고 주민들의 자발성을 촉발하는 수준에서(예: 계획 중인 단지내 교육프로그램에서도 외부강사가 아닌 주민강사를 초빙하는 것) 시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믿는다. 신회장은 주민들의 잠재성에 대한 믿음이 크다. “주민들이 알아서 만드는 거죠. 주민들 특히 주부들은 엄청난 꿈과 아이디어가 있어요. 저마저도 판에 박힌 거죠. 근데 그걸 하고 보면 거기서 아이디어들이 막 생겨나요(신민호).” 신민호씨는 자신의 소신은 소위 ‘문화논리’라고 하면서, 주민과 관련된 일에서 “나-주민 하나 하나의 장점이 뭐고 내가 재미있는 것은 뭐고 나도 인정을 받는구나!”로 가야한다는 생각을 고수한다. 주민 중에 화가 법률가 미술선생님을 섭외하고 또 수강하는 주민에게는 수강료를 낮춰서 아파트 학습 만들기를 꿈꾸고 있다. 광주에 있는 소위 “학원이 많아 살기 좋다는 ○○○동, 그 래 너희는 학원, 저희들이 가르쳐! 우리는 주민 스스로가 가르칠 수 있다(신민호)!”

신민호씨의 목표는 ‘애들 교육으로 모든 걸 거는 슬픈 일에서 부모들이 벗어나고 아이들이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파트단지가 아이들에게 고향을 만들어주는 것’

을 목표로 삼는다.

“우리 아파트 애들은 좀 자유스럽게 놀고, 장터가 이루어지고 갤러리에서 자기네들이 찍은 사진과 그림이 전시되고 그러면서 밤늦게까지 뛰어놀 수 있고… 학생들이 뛰어노는 게 좋더라고요. “아이들을 중심으로 50년 후 재개발하면 없어질 아파트,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는 고향이며 추억의 장소가 되도록 하자.”(신민호)

홈페이지도 신회장이 주도하여 열기로 결정하였고, 디자인도 손수 하였다. 홈페이지를 주민 간 상호 관계 맺기 및 생활의 필요를 돕는 쌍방향 의사소통 촉진의 통로로 삼고 있다. 객관적 정보의 공개 및 게시물도 엘리베이터 입구의 게시판에서 잠시 보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 편하게 천천히 읽을 수 있도록 섬세하게 배려하였다고 한다.

아파트의 일상적 문화의 쇄신과 창조를 이끌어 가는 가치관 즉 주민주체, 비(非)서열화, 비(非)평가, 관의 개입에 의한 행사에서의 주민 소외방지 등의 가치관을 담지하는 사람이 바로 신민호회장이다. 그는 사람들의 생활을 문화로 만든다는 목표로 그 중심에 가족 그리고 아이들을 두고 문화행사를 꾸리고 있다. 동네 꼬마들이 과자를 나눠주던 신회장을 기억하고는 “어, 영화 재미있어요. 언제 또 해요? 막 그래요. 언제해요? 그러면 또 해주세요.”할 때 더욱 힘을 얻는다고 한다. 문화 행사의 성공과 투명성을 입증하고자 신씨는 매월 50만원씩 임기 2년간 1, 200만원에 해당하는 회장사례금을 아파트문화재의 기금으로 헌납했다.

아파트 내 공간을 새로이 정비한 것도 건축가로서의 전문성을 기부한 것이다. 그 밖에 무엇을 문화의 내용으로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도 신회장의 몫이다. 주민 가운데 재능 있는 강사의 발굴로 교육프로그램을 열고, 가족중심의 사생과 글 대회를 개최할 예정

인데, 많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문화요, 그 것도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삶이 소재가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반상회와 동호회 등 만남을 촉진하는 장의 마련이 다른 활동의 발판을 만드는 주민공감대 형성에서 주요 축이라고 생각하고, 신회장은 1회당 5만원씩 1년에 20만원씩 아파트단지의 공적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다. 보육시설임대로 수익을 발생시켜 주민에게 추석선물로 환원한 것도 주민들이 마음을 열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선물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담당직원들이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 입주자 때와 상반됨을 입증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주민들의 변화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한다. 분명하게 일처리를 못하던 앞선 사람들-이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실망해서 관망하던 대다수의 주민들이 일처리를 제대로 해 내는 신회장등에게 동조하고 있고 현재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는 가족이 적어도 다섯 가족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을 나눠서 하니까 주민들이 더 도와주게 되었다고 한다. 새로운 아파트 문화-“이 아파트 맛; 풍요로운 삶(신민호)”-를 경험한 주민들이 이제 안목이 바뀌었고, 앞으로 회장이 바뀌어도 이제 높아진 주민의 안목으로 지켜갈 것이라고 신씨는 전망한다. 앞으로 신회장의 계획은 ‘입주자대표도 판만 만들고 주민 스스로가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다.

“머리 맞대고 의논하면 바로 결정이 되고 집행이 되요. 재미있지 않아요(신민호)?” 긍정적인 경험을 해 나가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는 신민호씨는 타 아파트의 경우에도 이런 전망을 공유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새 아파트는 희망이 있다고 한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풀뿌리문화운동이 확산되어 2013년 문화중심도시완성의 해에 광주 아파트들이 이런 문화를 가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2) “작은 집단에서부터 사회 정의를”;
입주자대표회의의 협조자

“우리는 늙어서도 우리아파트 경로당에 만나 같이 지내자(입대위원회들의 말).”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앞에도 회장님 네랑 일일 여행 했는데, 그 때 별교에 가지고 꼬막 점심 먹고, 순천만에 가서, 새 보고 갈 대밭으로 해서 등산하고 다시 순천으로 돌아와서 옛날에 커피 맛있게 먹던 데가 있어서 커피하고… 그랬더니 하루가 너무 좋은 거예요(문천국).”

문천국씨는 당시 농협 감사라는 전문성을 살려서 초기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을 만들었다. 그러나 초기 입주자대표회의는 문천국씨의 기대에 못 미쳤다. 문씨는 응분의 보수를 주고 최고의 관리소장을 영입하길 원했으나, 건설업체와 행정기관이 먼저 결탁하여 행정기관 공무원의 아내를 이미 관리소장에 내정하였다. 경비용역업체를 신생업체로 전환하려는 초기입주자대표회의의 움직임을 스퀴시동호회의 일원으로서 막아낸 경험도 있다.

권위주의적이고 자기 이익에 관심을 기울이고 아파트 공동지출 부분에서 이권을 챙기려는 소수를 제거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힘을 합하기로 결심하였다. 문천국씨는 전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수인격이던 관리소장을 경질하자는 의견을 냈고, 새 소장을 추천하여 선정하였으며 새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직원들을 잘 다스리도록 하여 주민서비스 질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문천국씨의 협조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긍정적으로 원활하게 협력하게 되고 대 주민업무태도가 호전되는데 일조하였다.

문천국씨는 아파트의 모든 생활을 자신의 재능과 관심으로 살펴보고 섬세하게 실제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감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문천국씨는 “기업 감사와 달리 살림하는 관점으로, 즉 적절한 비용으로 구매했

는가에 대하여, 내가 살림한다는 관점으로 공동 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용역계약을 꼼꼼히 살핀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봉사하는 회장 월 50만원, 회장보조 월 20만원, 회의참가비 회당 2만원으로 사례를 상향조정하자는 의견도 제시하여 회의 참가율을 높였다.

그리고 경비업체직원들로 하여금 등교 시 교통정리 시키기, 심야에 오토바이로 주변 순찰하도록 하기, 지하주차장에 점심시간대에 음악틀기도 문천국씨의 아이디어라고 한다. 또한 문씨가 주도하여 하자보수문제도 원래 시공사인 동부건설에 맡기기로 결정하여 불필요한 과정을 줄였고, 부수적인 이득도 챙겼다. 예전에는 지하주차장의 출입구가 불투명한 철문이었고 개폐가 힘들었는데, 방화문의 성격을 지니되 개폐가 쉬운 투명한 유리문으로 교체하자는 의견도 문천국씨가 제안하였다. 지하주차장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설치 및 반복 홍보 그리고 경비업체의 기동시간 체크, 헬스클럽의 관리방식 변경도 문천국씨의 아이디어이다.

문천국씨는 주민 간 갈등을 화해시키는데 늘 앞장선다. 입주자대표회의 활동의 일환이던 갤러리와 사랑방 시공 시 발생한 주민 간 갈등 해결도 문천국씨가 나서서 종결지었다고 한다. 아파트 거주 특성인 물리적 긴밀성과 더불어 심리적 소원함이 공존하는 곳으로, 어떻게 하면 심리적 친근감으로 전환하느냐가 분쟁발생의 해결책도 되고 적극적으로는 아파트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데 관건이라고 문씨는 생각한다. 화장실 흡연에 의한 세대간 공기오염문제나 배란다청소로 인한 누수, 위층에서 물건던지기, 층간소음, 지하층 소변누기 등 물리적 긴밀성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주민들 간에 신뢰성이 있어야 현실적인 해결책이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갈등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이 증가한다고 믿고 있다. 문천국씨도 주민

간 친밀성과 신뢰감의 형성을 위한 만남의 증진에 회장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 둘 사이에 이와 같은 믿음이 통하기 때문이다.

입주자대표회의 활동을 하면서 문천국씨는 자신의 지속적인 정체성을 확고히 해 가고 있다. 문천국씨는 ‘농협대학’에서 배운 바,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이상을 실현하고 싶어 한다. 문천국씨는 ‘사회의 일반적인 선’의 확산에 관심이 있으며, 사회가 정의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후손이 살아가야 할 사회를 위해 사회의 진보를 위해 내가 참여하고 희생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 나의 성장이 있는데, 남들이 하지 않는 일에 수고하는 것이 곧 베푸는 것이며, 대다수 선한 주민의 대한 사랑이다(문천국).” 문천국씨는 시간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연속적으로 실현할뿐더러, 일터와 삶터에서 동시에 맥이 통하는 삶의 양식을 추구하고자 한다. 농협지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연말모임에서 배우자나 파트너를 대동하도록 한 점을 그와 같은 예의 하나로 들고 있다.

문천국씨가 아파트주민간의 갈등 해결이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전입주자대표회의와의 분쟁에 개입하는 이유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문화 창출에 개입하는 이유는 “즐겁다. 아파트문화 정립은 소신이다. 모범사례를 남기고 싶다. 변화하는 주민문화를 보고 싶다.”는 것이다. “활발한 입주자대표회의활동으로 실감나는 이웃사촌을 얻었다. 이웃끼리 재능을 교환하고 경험을 공유하여 시내 사는 동생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문씨는 말한다. 문씨는 주민 대다수는 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주민의 선의를 확인하고 그들의 지지를 받아 능동적·창의적으로 주민욕구를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충족시키고자 한다. 문천국씨는 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삼각체제를 강조한다. 또한 문천국씨는 강직한 회장과 협력

하는 기쁨, 보완자의 위치를 기뻐하고 있다. 문씨에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만나 함께 일하는 회장님 부부와의 일일 여행은 인생 최고의 기쁨이었다.

이제까지 느티나무도서관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내적 동기와 활동을 살펴보았다. 마을도서관의 관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모두 리더로서 오랫동안 성숙시켜 온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장(場)으로서 각각 마을도서관과 입주자대표회의를 선택했으며, 그러한 장을 통하여 현대 도시인의 소외된 삶 가족생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관계성을 회복하며 시간과 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지향을 고수해왔다. 뿐만 아니라 함께 할 사람들과 이러한 가치와 지향을 공유하고 그들을 협조자로 세웠으며, 함께 변화할 수 있는 개방성 있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또한 활동가들은 장(場)과 리더를 만나 자신들에게 내재한 가치를 실현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점차 주체적인 의식이 선명하게 진화했고, 자발적인 역동에 의해 창의적으로 활동 공간을 열어가는 사람들이었다. 이 활동가들의 활동은 리더와 함께 공동의 리더십을 산출하면서 핵가족의 한계에서는 불가능한 다양한 시도들을 해 내고 있다. 그 결과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하고, 보다 여유 있고 풍요롭고 서로 돌봄을 나누는 삶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마을도서관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거점이며 그 활동가들의 활동은 가족친화적인 활동이 되는 것이다. 새로운 장에서의 활동을 통해 가족생활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보다 큰 의미의 가족으로서 친밀감과 신뢰를 형성하고 돌봄을 주고받으며 공동의 일상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V. 결론 및 논의

포스트모더니티 사회에서 도시는 마을의 연속이다. 모든 것들과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지식이 우세해지고 있다.(마페졸리, 2009)

1. 가족친화 지역사회조성에 대한 시사점

우리는 이 연구에서 도시에 있는 마을도서관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그리고 그 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면접하여, 마을도서관과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족친화적 마을의 거점으로서 사람들의 생활과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가, 그리고 마을도서관과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한 활동가들의 활동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답을 구해 보았다. 이제 이 연구의 결과로부터 가족친화마을 혹은 가족친화 지역사회의 형성 및 확산에 관한 논의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자.

첫째, 가족친화 지역사회의 거점 형성에 있어서, 외생적 동기 부여가 아닌 내적 동기의 발현 그리고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중요성, 주민에 대한 신뢰, 주요가치의 고수와 일치리에 대한 엄밀함과 개방성을 균형 있게 견지하는 리더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의 활동으로 완성된 결과물 즉, 제도나 시설이나 활동 혹은 프로그램 등이 사람들을 살기 좋게 할 수도 있으나, 도서관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가들은 사람을 살기 좋게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의 중요성은 류중석외(2007) 그리고 행정자치부(2007)의 문건에서도 살기 좋은 지역 혹은 가족친화마을이 결과물로서가 아니라 시간차원에서 과정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 서술된 바 있다(차성란, 2009:77에서 두 문헌의 내용을 재인용함).

또한 두 사례에서 시작은, ‘사람들을 행복하

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뜻을 품은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들로 부터 일어났다. 그리고 리더와 활동가들 모두 주민들에 대한 믿음, 사람들에 대한 희망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부정적인 것을 처리할 때에는 정확하고 철저해야 하지만, 창조적인 문화를 세워갈 때에는 통제하지 않고 방향성만 견지하는 것, 주민들이 최대한 자발성을 발휘하도록 장을 여는 것이 리더의 역할인 것 같다.

둘째, 가족친화적인 마을 거점의 형성과 진화에는 필연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주체이기 때문에, 가족친화마을은 인위적인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주민들의 의식과 생활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일정한 량의 시간을 요구한다.

어린이 도서관으로 시작해서 현재의 느티나무도서관으로 된 긴 과정을 볼 때, 그리고 광주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 입주자대표회의의 부정적인 관행을 청산하는 일에서만 막대한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했음을 생각할 때, 그리고 또 여전히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차근차근 낮은 수위의 활동부터 성취의 기쁨을 체험해 가면서 여전히 초기 단계를 다지고 있음을 볼 때, 여러 가지 거점들이 성숙하고 서로 연결되어서 이루어질 가족이 살기 좋은 마을은 절대로 단시간에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일상적인 문화의 변화는 사람들의 생각이 변해야 하고 습관이 변해야 하기 때문이며, 관련된 복잡한 사항들이 함께 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일어난 일상 문화의 변화는 견고하며 지속적인 관성도 가질 것이다.

셋째, 가족친화마을의 중요한 요소로 일상성과 통합성을 리더들은 의식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을 견지하려면 전략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한 전

략에 용어의 취사선택, 함께 일 할 파트너의 선택, 주요 방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소의 배제, 공간의 계획과 수정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사회 일반의 대략적인 흐름 가운데 자리 잡으면서 개인과 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부정적이고 파편적인 요소들에 저항하게 한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처음에는 소외된 개인들이었으나, 일단 모여서 함께 하는 문화를 만들어 낼 때에는 대안적인 문화의 창조가 가능하다. 그 이유는 이러한 저항이 부정적인 현실을 성찰하는 사람들의 유기적인 힘의 결집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마을도서관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어나는 일들 활동하는 사람들의 체험 그 속의 열광과 환희를 볼 때, 우리는 가족친화마을의 중요요소로서 지역사회 내에 사적 영역과 소비재시장과 노동시장이라는 공적 영역의 중간에 있는 소위 ‘삶에 기반 한 공공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살기 좋은 마을의 거점은 일-가정 양립의 긴장관계에 있는 가족의 약함을 지지하는 단순한 의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마을도서관 혹은 입주자대표회의와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도하는 아파트단지 내 생활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과 직장을 벗어나 제3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장이며, 두 긴장 영역의 중간에 자리하면서도 일상적인 삶에 기반 한 공공 영역으로서 양 쪽의 의무로부터 해방되는 공간, 양 쪽에서 채우지 못한 삶의 총체적인 만족의 양을 높일 수 있는 곳이다.

현신의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자유롭게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실현하는 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 연구의 제보자가 되어 준 활동가들은 모두 기쁨의 회복과 개인적인 성장이 이 제 3의 영역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 이러한 거점에서의 삶은 기존의 가족을

지원하는 측면도 있으나 핵가족의 울타리를 뛰어 넘는 보다 풍요로운 새로운 가족 혹은 기존 가족 사이에도 새로운 관계 맺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2. 이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문제

먼저, 가족친화 지역사회 거점의 잠재성을 염두에 두고 ‘이상적인 사례’로 선정된 마을도서관이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어두운 면 혹은 한계나 문제도 연구되어야 한다.

이들테면, 이 연구에서는 활동가들의 체험과 이용자의 수익이 검토되었지만, 도서관의 영속적인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일반 직원의 근무환경이나 직업정체성의 특성과 수준은 검토되지 못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이 가속화되기 위해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장애는 무엇인가 등도 다루어지지 못했다. 그 이유는 도시의 소외된 삶을 극복하기 위한 자생적 노력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문제에 주력한 결과, 문제 중심의 사고의식이 다소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초 연구로서 각기 성격이 다른 두 개의 거점을 함께 다룬 이 연구의 가장 큰 한계라면, 동일한 성격의 여러 거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산출할 수 있는 큰 폭의 변이를 살펴볼 수 없다는 점이다. 즉 몇 개의 마을도서관 사례를 함께 혹은 몇 개의 입주자대표회의를 함께 연구하였다면 도시에서 마을도서관과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질 수 있는 잠재성과 한계성을 보다 잘 논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끝으로, 또한 이 연구의 한계 가운데 보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활동에 가담하는 주민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주민이 활동의 폭이 커지면서 활동가로 전환해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한 시점에서 볼 때, 도서관에서 대출을

주로 하는 이용자나 청소년클럽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 그리고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나가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주민들을 포함한다면 이 두 거점이 일반적인 주민의 생활에서 가지는 의미 그리고 활동가들의 활동이 미치는 영향 또는 그에 대한 평가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이 기초 연구로부터 파생된 연구문제 혹은 과제도 있다. 첫째, 가족친화마을의 거점에서 나타나는 성별화 현상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성미산마을이 공동육아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초등학교나 생활협동조합 마을극장 다양한 동호회 등으로 발전했을 뿐 아니라 “무엇이든 원하면 해 낼 저력을 갖추는 사이(성미산 주민 탁석민)”에 남성과 여성들이 모두 마을에 녹아들어 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두 거점은 상당히 성별화되어 있다. 얼핏 보기에 도서관은 여성중심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남성중심으로 발달하였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다른 성별이 두 거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혹은 활동가들이 가지는 다른 성별에 대한 인식이 거점들의 성별화를 촉진하는 것은 아닌가, 성별화의 결과가 그렇지 않았을 경우와 달리 거점의 성격에 혹시 미쳤을지도 모르는 영향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거점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가족친화마을이 형성되기 위해서 다양한 거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족친화마을의 진행단계가 깊어질수록 다양한 거점간의 네트워크가 중요해진다. 특수한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거점들과 보편적인 욕구를 통합하는 거점간의 연계가능성이 그러한 연구를 통해 타진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보고서(이송지외, 2009)에서 연구한 가족친화마을의 거점들에는 평생학습센터와 사회복지관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부천 고강동의 경우), 지역주민모임인 희망세

상과 마을도서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부산 반송동의 경우), 생협과 공동육아어린이집(서울 성미산마을), 아시아 민들레센터라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북 장수군)가 있는데, 이러한 거점들과 더불어 다양한 거점들이 발견되어 연구되어야 하면, 건강가정사업의 주요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 또한 지역에서 하나의 보편적인 거점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강기정, 박경애(2009). 가족친화마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탐색적 조사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135-155.
- 2) 김민수(2009). 도시디자인의 공공미학. 2009 인천 세계도시인문학대회 자료집.
- 3) 김선미(2009a). 토론; 행복한 가정나눔 프로젝트: 다정한 이웃, 건강한 마을 만들기-2009, 2010 여성부공동협력사업-.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129-131.
- 4) 김선미(2009b). 청소년, 더 넓은 의미의 돌봄을 생각해 봄.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제 6차 가족정책포럼 자료집, 36-38.
- 5) 김선미, 김소영(2009). 도시 마을 공동체에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기업과 지역사회. 2009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05-117.
- 6) 김찬호(2006). 관계의 끈이 이어지는 마을. 가족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마을로. 서울 : 또 하나의 문화.
- 7) 미셸 마페졸리(2009). 탈근대적 도시와 공간. 2009 인천 세계도시인문학대회 자료집.
- 8) 박소현(2006). 가족친화마을환경 개념 및 평가 지표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 9) 박수선(2009). 토론: 가족친화마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탐색적 조사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157-158.
- 10) 유창복(2009). 도시 속 마을공동체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사례연구-성미산 사람들의 ‘마을하기’.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윤경화(2009). 행복한 가정나눔 프로젝트: 다정한 이웃, 건강한 마을 만들기-2009, 2010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2009년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09-128.
- 12) 이승지, 김혜장, 이경란, 광영선, 정영화(2009). 가족친화마을만들기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연구보고서.
- 13) 이은희(2008). 후기 근대 지역공동체의 성찰적 동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4) 조용환(2009). 질적 연구 논문 작성법. 대학원생을 위한 학위논문 작성법 특강.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 15) 조한혜정(2006). 가족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마을로. 서울 : 또 하나의 문화.
- 16) 조한혜정(2007). 다시 마을이다. 서울 : 또 하나의 문화.
- 17) 차성란(2009). 가족친화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추계학술대회 자료집, 71-80.
- 18) 홍승아(2007).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모형 개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9) 느티나무도서관재단. <http://neutinamu.org>.
- 20) 동부센트레빌아파트 홈페이지. <http://www.pdcenter.or.kr>.

- 투 고 일 : 2010년 1월 1일
- 심 사 일 : 2010년 1월 8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2월 23일